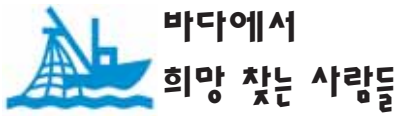


# “무항생제 장어양식 연봉 7000만원... 청년취업 성공신화 이뤘죠”



### 바다에서 희망 찾는 사람들

“열정과 노력만 있다면 어디에서든 꿈과 실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영광군 법성면 ‘청산양만영어조합법인’ 서지훈(34) 관리소장은 연봉 1200만원의 ‘말단 직원’에서 연봉 7000만원의 관리직으로 ‘승승장구’하며 ‘청년취업 성공신화’를 써가고 있다.

고향 신안에서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를 나온 그는 전공을 살려 당시 여수대학교(현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양식학과에 진학했다. 그러나 2006년 졸업 후 취업이 어렵고 고민이 깊어졌다. 취업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였다. 친구들처럼 ‘수산직 공무원’을 준비했고, 혹시 몰라 교직도 이수했다.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마음 깊은 곳에 뿌리박힌 욕심은 버릴 수 없더라고요. 충분한 발전가능성, 미래를 보고 뛰어 들었습니다.”

서 소장은 민물장어 양식에 뜻을 뒀다. 갖 대학을 졸업한 탓에 수역원에 달하는 사업자금 확보가 어려

## 영광 '청산양만영어조합법인' 서지훈 관리소장

웠다. 그럴 바에야 취업해 회사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꿈을 그렸다. 그 회사가 청산양만영어조합법인이다.

“처음에는 현장에서 잡일부터 배웠죠. 사료도 주고, 청소도 하면서... 생활 양식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는 일이 힘들었지만 직원이 아닌 경영자 입장에서 회사를 바라봤다.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다.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춘 ‘안전한 먹을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않았다. 묵묵히 1년간 준비과정을 거쳤다. 일이 끝나면 다시 양식장에 들어가 실험을 했다.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오자 그는 회사에 ‘무항생제 장어양식’을 제안했다.

“장어는 ‘항생제 덩어리’라는 인식이 아직도 많아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자체적인 무항생제 장어 양식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어류양식 부분에서 항생제가 없는 유기수산물을 인증받고 관리한 것은 국내 최초였다. 현재 무항생제 장어양식은 ‘청산양만영어조합법인’이 성장하

**양식장 청소하고 잡일부터 배워**

**안전 먹을거리 제공 소비자 욕구 충족**

**국내 최초 어류양식 무항생제 인증**

**유통과정 최소화 직매장 개장**

는 동력이 됐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인식도 퍼졌고, 장어 특유의 ‘흠냄새’도 잡아냈다.

서 소장은 “장어 육질에서 나는 흠냄새는 그동안 사료나 물속 미생물 때문이라고 알려졌으나 제가 연구한 결과 원인은 ‘사육환경’에 숨어있었다”며 “사육환경에 따라 육질과 육속, 성장속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는데, 이걸 절대 알려줄 수 없는 ‘특급 비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가지 문제 개선에 나섰다. 바로 유통과정이었다.

“장어는 중간 유통업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



돼 왔어요. 제 노력의 결실인 장어가 증가하면 말한 마다 따라 갔어지고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안타까웠습니다. 회사도, 저도 성장을 위해선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봤습니다.”

유통과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한 게 ‘직매장’이다. 2년 전 영광군 법성면에 직매장 ‘장어평가정산’을 열었다. 맛과 품질이 뛰어나다고 입소문 나면서 광주와 전북 전주, 경기 일산과 경북 대구 등 매장이 6개까지 늘었다.

서 소장은 후배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수산물 관련 졸업생들이 전공을 찾아 취업하는 경우도 극히 일부고, 취업해도 이직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현장경험을 원하는 모교 후배들을 고용하거나, 장학금을 기탁하며 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다.

“창업하는 모든 이가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현장경험을 쌓고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찾아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이곳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일보 사장배 '제5기 리더스 아카데미 골프대회'가 지난 23일 화순 엘리트CC에서 열렸다. 원우들이 라운딩을 앞두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일보 사장배 '제5기 리더스 아카데미 골프대회' 성료

### 1학기 종강식·체육대회도

광주일보 사장배 '제5기 리더스 아카데미 골프대회'가 지난 23일 화순 엘리트CC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과 김성운 5기 원우회장(경도건설 회장)

등 원우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다음날인 24일에는 '제5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학기 종강식 및 체육대회'가 호남대학교 캠퍼스 전연산 디쿠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원우 100여명이 참석해 축구, 소프트볼 등 다양한 경기를 반대향

으로 펼쳤다.

김여송 사장은 인사말에서 “5기 원우들 만큼 열정적인 기수는 없었다”며 “열정의 에너지를 긍정의 에너지로 바꿔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으로 승화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황금추관 개관 12주년 조선대, 기념행사 가져

조선대(총장 강동원)는 최근 법과대학 산학협력회의실에서 ‘황금추관 개관 1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황금추 동관건설 회장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05년 16억원을 들여 3층 규모로 황금추관을 건립, 조선대에 기증했다. <조선대 제공>

## 82개 여행사 조합원 참여 한국여행사협회동조합 창립총회



한국여행사협회동조합(대표 송시열·(주)팔도관광 대표)은 지난 22일 광주 5·18교육관 2층 강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지역 77개 여행사와 서울·경기 2개, 제주 3개 등 총 82개 여행사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한국여행사협회동조합은 대형 패키지 업체를 견제하고 수도권 여행사로 빠져나가는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소규모

여행업계가 모여 결성하게 됐다.

이들은 조합원 간 세미나와 연수를 통해 정보를 나누고, 상품 공동판매와 관광객에게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갈 예정이다.

송시열 대표는 “전국에서 유일한 여행업 협동조합”이라며 “지역경제, 지방공활 활성화와 소규모 여행업계 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이제중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수지상세포연구 임상연구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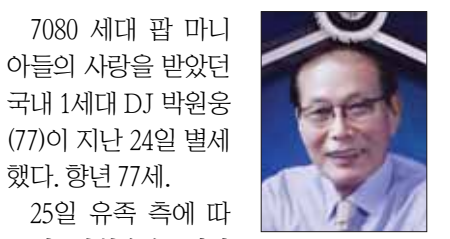
화순전남대병원 혈액내과 이제중 교수가 최근 열린 제18회 한국수지상세포연구회 심포지엄에서 ‘임상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다발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지상세포 기반 항암면역세포치료 임상 1/2a상 연구’ 결과를 국제암학술지 ‘온코타겟’(Oncotarget)에 발표, 임상면역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다발골수종이란 체내의 뼈를 녹이거나 약하게 만들고 백혈구·혈소판·적혈구를 줄여 빈혈, 출혈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혈액암이다. 특히 이번엔 발표된 연구결과를 화순반이오메디컬밸류러스터에서 개발한 첫번째 암면역치료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국내 1세대 DJ 박원웅씨 별세



7080 세대 팝 마니아들의 사랑을 받았던 국내 1세대 DJ 박원웅(77)이 지난 24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25일 유족 측에 따르면 박원웅은 전날 밤 9시 30분께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1967년 MBC 음악 프로듀서로 입사한 박원웅은 ‘뮤직 다이얼’을 통해 정식 DJ로 데뷔했으며 이후 ‘별이 빛나는 밤에’, ‘밤의 디스크쇼’, ‘박원웅과 함께’ 등 대표 음악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지난 1993년 ‘골든디스크’를 마지막으로 22년간의 DJ 생활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 화측

▲나명영(아마란도·전 광주일보 국장)·김윤정(마르시아)씨 장남 현철(프란치스코)군 이현복·김숙례씨 장녀 하영양=7월2일(일) 오후 1시 30분 광주시 동구 신양파크호텔 그랜드볼룸을.

페이지 공고문 참조. 문의 062-600-5241.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지원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365일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광주서구중독관리센터 열린마음상

담센터 무료상담=서구지역 중독 및 정신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상담 금호복지관 062-383-0205. 쌍촌복지관 062-373-0207. 쌍촌시영복지관 062-373-0203.

▲최창렬 전실용음악교수 강좌=색소폰, 기타, 재즈 피아노 등 무료강의(초보환영).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평생교육원, 매주 일요일 오후 2시~4시 강의. 문의 010-4617-6078.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로 음향장비(컴팩트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대학생 봉사단=자원봉사 상설체험·홍보, 손발맞사지, 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지원, 공영,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으로 광주지역 거주 대학생.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6.

▲외국어전문봉사단=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특역 봉사활동으로 외국인 과 회화가 가능한 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및 기타 외국어.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4.

▲심정재가 장기요양기관 회원=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 판정 수시상담. 고령, 노인성 질환(지매·중증·노환), 정소, 취사,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차량목욕),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062-264-7748. 018-690-5356.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회원=언어발달 평가(표준화된 언어평가 도구 사용), 언어발달 교육(개별·모듬 수업 : 주 1~2회, 회당 40분). 초등학교 이

하 다문화 가정의 자녀.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070-8768-9461.

**부음**

▲이덕재씨 별세 정호·정열·정례·정순씨 부친상 이호덕씨 시부상 박신우씨 부

부상=발인 26일(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문원섭씨 별세 영식·창식·성욱(광주 도시철도 근무)씨 부친상 윤현주·김진아씨 시부상 선중·수현·세연·정연·지윤씨 조부상=발인 27일(화) 광주서구장례식장 VVIP 1호실 062-366-4444.

### 등문회

▲광주 효동초등학교 45회 동창회(회장 오경열) ‘응답하라 1987 상상하라 2017’ 행사=7월1일(토) 변산국립공원 일대에서 진행.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윤암동에서 관공버스 출발, 문의 오경열 회장 010-6286-3707.

### 알림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인성이모작 커뮤니티(학습동아리) 지원 = 사교나 친목이 아닌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 토론, 활동이 있는 5명 이상의 중장년층 참여자로 구성된 커뮤니티. 23(금)까지 접수. 흡

**謹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弔**

<b>201호 故조원식 남(남/68세)</b> 子/子婦 : 조영옥/김은자, 영모 女/婿 : 조금숙/이두원 兄弟 : 조상현, 남현, 태현 •발 인 : 6월 27일 •장 지 : 영락공원	<b>301호 故이경임 남(여/76세)</b> 子/子婦 : 정희식/박귀숙, 용식/장금자, 정식/심광인, 점일 女/婿 : 정자애/김종민 孫 : 정재원 •발 인 : 6월 26일 •장 지 : 보성동치 선영
<b>401호 故김홍수 남(남/55세)</b> 子 : 김도연, 심준 兄弟 : 김홍남, 홍준 夫人 : 박동숙 •발 인 : 6월 26일 •장 지 : 영락공원	<b>402호 故이준순 남(여/65세)</b> 女/婿 : 오은혜/김병현, 은이/이영관, 정선/노동준 孫 : 김동호 •발 인 : 6월 26일 •장 지 : 영락공원

**함께 할 10년. 함께 할 100년 금호 장례식장** 062-227-4000 www.mykumho.com

대표이사 구제길